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홍 순 혜

(서울여자대학교)

이 숙 영

(서울여자대학교)

김 선 화

(서울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의 변동 추이를 추적하고 문화변용과 남한사회적응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2003년 홍순혜 외의 연구(1차 조사)에 참여했던 90명의 9세-24세의 북한이탈청소년 중 추적이 가능했던 46명(2차 조사)이다. 1차 조사(2003) 결과 주변형이나 분리형이었던 북한이탈청소년의 약 37%는 2차 조사(2009)에서 동화형 또는 통합형으로, 동화형이나 통합형 중 약 21%는 주변형이나 분리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문화 수용정도 및 북한문화 유지정도와 남한사회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한문화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문제는 적고 일상생활만족도는 높은 반면, 북한문화 유지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화변용 이해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성공적인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청소년, 문화변용, 남한사회적응, 심리사회적 문제, 일상생활만족도

* 본 연구는 2009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남북분단 이후 남한에 새롭게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까지 총 1만 5천 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입국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 입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그 누적수가 1,000명대에 진입한 후 2006년 2,000명대, 2009년에는 약 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통일부, 2009). 이 중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 수는 1,1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5월).

이처럼 북한이탈청소년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상이한 문화로 인해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은 순탄치만은 않다. 200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장창호, 2001; 이기영, 2002; 길은배·문성호, 2003, 홍순혜 외, 2003; 금명자 외 2004; 정향진, 2005; 권효숙, 2006; 박윤숙, 2007)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가족·학교·지역사회 전 영역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최근 많은 연구들은 문화변용 또는 문화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Berry는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해외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새로운 문화환경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적응하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Berry, 1986; Berry, Kim, Minde, and Mok, 1987; Berry, 1990, 1990a; Berry, Phinney, Sam, and Vedder, 2006), 최근 국내 연구자들도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떤 문화변용 유형을 보이는지, 어떤 문화변용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금명자 외, 2004; 정진경·양계민, 2004; 백혜정 외, 2007; 김윤나, 2008; 김종국, 2008; 홍순혜·이숙영, 2008).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되어온 관계로 아직 중단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추적조사(중단연구)는 동일 대상에 대한 시간적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전우택 외, 2006)와 정신건강에 대한 추적연구(조영아 외, 2005; 홍창형 외, 2006)에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적응은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성장해야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을 잇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성장에서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은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청소년시기의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추적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 통일부 지원으로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이 수행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연구의 데이터를 1차 년도 자료로 활용하여 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차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문화변용 유형의 변동 추이와 문화변용과 남한사회적응과의 관련성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화변용유형과 사회적응과의 관계 규명은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 촉진을 위해 사회가 어떤 문화변용 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1차 자료(2003)는 문화변용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자료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2차 자료(2009) 수집 시 1차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변용 이외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위축, 우울·불안, 공격성)과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5년의 시간 경과에 따른 문화변용 추이뿐만 아니라 현재(2009)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적응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용가능한 자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남한사회적응에 대해서도 시간변화에 따른 추적을 시도할 수는 없었으나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과 남한사회적응과의 연관성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은 1, 2차 조사에서 어떻게 다른가?

둘째,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개인별 문화변용 유형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청소년 정의와 현황

(1)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념정의

북한이탈청소년이라 함은 북한에서 탈출한 청소년 시기의 대상자를 말하며 우리사회에서 합의된 정식 용어는 아니다. 동일개념의 또 다른 용어로 '탈북청소년', '청소년새터민'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7월부터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이 법안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연령에 국한을 두지 않는 일반어로 사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발달단계 상에서 아동의 역할행동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권이중, 1996; 장창호, 2001: 206

재인용). 우리나라 현재 실정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대를 명시한 법률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보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명시하고 있다. 2003년도에 이루어진 1차 조사(홍순혜 외, 2003)에서는 보호 대상으로서의 청소년보다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아직 결혼이나 취업 등 성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이 명시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였다. 2003년도 조사에 대한 추적조사의 성격을 띤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이 정의를 따르되, 다만 본 연구가 2차 추적조사인 관계로 1차 조사 당시 9-24세에 해당했으나 만 5년이 지난 현재 24세 이상인 경우도 연구 대상으로 일부 포함시켰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2)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입국 현황

1990년대 전반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주로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소수였던 반면 '9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탈북 및 남한 입국이 증가하였고, 특히 '99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입국자 수가 해 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9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90년 이전까지 남한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총 607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말 현재 15,057명에 달해 약 25배나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 속에 학령기에 속하는 6세부터 20세 북한이탈청소년의 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었다. 2008년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총 2,809명 중 6-20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29명, 약 12%로 집계되었다(〈표 1〉 참조).

〈표 1〉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의 남한입국현황

(단위: 명)

구분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의 남한입국현황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입국자수	86	71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6-20세	13	12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29

* 자료출처 : 2009 통일백서

2) 청소년의 문화변용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1) 문화변용의 개념 및 유형

문화변용(acculturation)¹⁾은 두개의 상이한 문화 간의 지속적인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적 현

1) 'acculturation'은 '문화적응', '문화동화' 또는 '문화변용'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문헌들(윤인진, 2000; 금명자 외, 2003; 2004; 김윤아, 2008)은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응'은 자칫 본질을 적응 또는 부적응의 이분화 시각으로 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이 새로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가치, 신념, 문

상의 변화(Redfield, Linton, and Herskovits, 1936)로 보는 견해와 개인의 심리적 변화 현상(Graves, 1967)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Gordon(1964)은 문화변용을 새로운 문화로의 동화과정으로 보고 모국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현지 적응을 하나의 연속적인 동화과정으로 보고 시간에 따른 단계적 적응을 긍정적 변화로 간주하였다. 반면 Berry(1990)는 문화변용을 자신의 기존 문화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과 참여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양쪽의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해외이주민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문화변용의 이론적 근간으로 Berry의 문화변용모델(Berry's Acculturation Model: BAM)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Mana, Orr, and Mana, 2009).

Berry(1986)는 가치, 철학, 신념, 문화, 생활양식 등에서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문화의 유지 속성과 새로운 문화의 수용 경향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BAM은 크게 두 가지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하나는 기존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문화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중심으로 문화변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① 통합형(integration) -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② 동화형(assimilation) - 새로운 문화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③ 주변형(marginalization) -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경우 ④ 분리형(separation) - 기존문화만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BAM의 유형은 시간적 구분이 아닌 이주자 당사자가 두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와 민족정체성 등과 맞물려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을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새롭게 정착한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존의 북한문화와 새로운 남한문화를 함께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양쪽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치, 정체감, 습관, 생활방식 등의 측면에서 변화해 가는 현상이라고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개념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을 BAM의 4가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홍순혜·이숙영, 2008).

첫째, '통합형'은 북한문화의 전통과 가치의 존중과 함께 새로운 남한문화의 장점과 기능을 잘 수용한 형태이다. 둘째, '동화형'은 기존의 북한문화의 가치, 철학, 신념, 생활양식 대신 새로운 남한문화를 수용하여 적응하는 경우이다. 셋째, '분리형'은 새로 정착하게 된 남한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북한문화를 유지하고 북한 정서와 생활태도를 유지하려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형'은 기존 북한문화와 새로운 남한문화 모두에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두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 어떤 문화에도 소속되지 못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화, 전통 등이 남한문화수용과 북한문화유지라는 측면을 다 내포할 수 있다고 보며, 어느 한 측면이 더 적응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측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acculturation'을 '문화변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 문화(북한문화)		새로운 문화(남한문화)	
		남한문화의 사고,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남한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짐	
		“그렇다” ↓	“아니다” ↓
북한문화의 정체성과 함께 북한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짐	“그렇다” ⇨	통합형	분리형
	“아니다” ⇨	동화형	주변형

〈그림 1〉 Berry의 문화변용모델을 적용한 북한이탈청소년 문화변용의 4가지 유형

(2) 청소년 문화변용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문화변용은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Berry(2005)는 이주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집단차원의 문화변용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집단차원의 문화변용은 자신이 경험한 기존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누구나 새로운 환경의 접촉 시 경험할 수 있는 낯선 언어, 음식, 생활방식, 규칙의 어려움과 변화 과정에 주목한다. 집단적 차원의 문화변용은 보통 시간경과와 함께 적응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Ying, Han, and Wong(2008)의 연구는 민족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안계 미국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지향성(문화적 자부심, 언어, 사회적 관계, 음식, 여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국에 정착한 10대 초기 청소년에 비해서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기존문화에 대한 집단 민족성이 강한 반면, 새로 접하게 되는 미국 음식과 영어 사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중국계와 동남아시아 청소년으로 구분해 볼 때, 중국계 청소년들이 민족적 정체성이 더 강하고 미국 음식과 영어 사용에 있어서 동남아시아계 청소년들보다 어려움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문화변용 현상에서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민족지향성을 강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Ying and Lee(1999)는 부모와 가족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변용은 새로운 환경에서 개인이 적응하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변용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두고 있으며 ‘문화변용 스트레스’로 설명된다.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개인이 환경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혼란, 불안, 우울 등이 문화변용 과정상의 부정적 경험과 맞물려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전 영역에서 건강의 훼손을 초래하는 요인을 일컫는다(Berry et al., 1987). Ford(2006)는 미국으로 이주한 10세-19세의 라틴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변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사용이 능숙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강한 라틴계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다른 라틴계 미국 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Smokowski, Buchanan, and Bacallao, 2009) 결과에서 보면, 이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라틴계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높아졌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기존 라틴문화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무망감과 공격성의 증가로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이주 청소년의 적응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인 Berry 외(2006)의 연구는 13-18세 이주청소년 5,366명과 토착집단 청소년 2,631명을 비교 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변용을 두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통합형(integration), 기존 문화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민족형(ethnic), 새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국지형(national), 기존 문화와 새 문화 모두에서 동떨어진 분산형(diffu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적응은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통합형의 경우 심리적·사회문화적 영역 모두에서 적응이 높았고, 민족형의 경우 심리적 적응은 높았으나 사회적 적응은 낮았으며, 분산형의 경우 가장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tevens 외(2007)의 연구에서는 뉴질랜드로 이주한 모로코계 10대 청소년의 문화유형을 기존 문화와 현재의 문화 모두에서 애착이 강한 통합형(integrated)과 기존 문화에만 강한 애착을 보이는 분리형(separated), 그리고 기존 문화와 현재의 문화 모두 중간으로 섞여있는 혼재형(ambivalent)으로 분류하였는데, 분리형과 혼재형의 경우 문제행동이 컸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부모와 문화변용 유형이 다를수록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적응

(1)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문화변용 또는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적응)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윤인진(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을 크게 두 가지 차원, 물질적 적응과 정신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두 차원을 각각 성공과 실패로 교차(cross)시켜 완전적응(통합), 물질적 적응(고립), 정신적 적응(문화적 동화), 부적응(주변화)으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대상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물질적·정신적 영역 모두에서 부적응하는 '주변화형'이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변용의 대표적 연구로는 금명자·김동민·권혜수·이소영·이희우(2003)의 연구가 있다. 금명자 외(2003)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들(허춘영·김광일·이장한, 1999; 전우택, 2000; 이기영, 2002)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의 하나인 시간 경과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적응의 향상과는 다르게 정서적 적응에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Atkinson, Morton, and Sue(1998)의 정체감 발달모델(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MID) 5단계로 구분하여 이주자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MID는 1단계: 순응, 2단계: 불일치, 3단계: 저항과 흡수, 4단계: 자기반성, 5단계: 통합적인 명료화와 인식 과정으로 구성되며, 새 문화에 대해서 '높은 평가-비하-선택적 높은 평가'라는 U자형 적응형태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 금명자 외(2003)의 연구는 MID를 기본전제로 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과정을 이해하고 남한정착 기간에 따른 문화적 정체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나원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남한입국 4개월 이하에서는 동화형, 남한체류 1년~2년에서는 분리 및 주변화형, 2년 이상에서는 동화형과 통합형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1년~2년 차 북한이탈청소년들 상

당수가 주변화형으로 관찰되었고, 대안교육이나 개별교육보다는 공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들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남한정착 1년~2년 사이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이 가장 힘든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대한 각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정우(2006)의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하나의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북한에서의 '이중적 사회화 과정'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입국에 앞서 이미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남한의 자본주의적 사고를 미리 접착하여 받아들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중국에서의 '예비사회화 과정'이다. 중국 및 제 3국에서 자본주의적 사고와 생활양식에 대해서 학습하여 훈련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의 단계는 남한에서의 '재사회화 과정'으로 남한입국 후 기존의 북한문화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탈북 후 곧바로 남한입국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제 3국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접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예비사회화를 걸쳐 남한으로 입국할 경우 초기 정착이 용이하였음을 보여주었다.

(2)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적응과의 관계

문화변용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두고 있다. Berry(2003)는 문화변용을 인간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rry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즉, 단일차원이 아닌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다차원적으로 탐색되고 있다(이기영, 2002; 박윤숙·윤인진, 2007; 최영미·김석웅·오수성, 2008).

Berry(1990a, 1997)는 문화변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새로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성인 대상 연구들에서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도를 적응의 지표로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적응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내현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Berry et al., 2006; Ford, 2006; Stevens et al., 2007; Somokowski et al., 2009).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2006)의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과정을 적응준비도, 사회적응, 심리적응으로 분류하고, 사회적응 과정은 다시 문화적응, 학교적응, 가정적응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 후 문화(적응)변용을 남한문화 적응과 북한문화 적응으로 구분하여 심리적응(내현화된 문제, 외현화된 문제)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죄책감, 외상경험, 남한생활에 대한 정보획득 정도, 북한 및 남한에서의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있으며 특히 외상의 심각성 및 남한친구와의 친밀감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문화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내현화된 문제가 심각하였고, 북한문화 적응이 높을수록 외현화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Berry의 4가지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살펴 본 연구로는 홍순혜·이숙영(200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변용의 유형(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

과 심리사회적 적응(자아존중감, 비행, 남한사회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동화형'이 남한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윤나(2008)의 연구는 '통합형'을 보이는 청소년 12명을 추적하여 질적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의지, 지지, 영성, 강인 유연성 등의 요인들이 탈북 이전단계에서부터 제 3국 체류 단계를 거쳐 국내 입국 정착단계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영적 유연성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의지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정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변용 연구가 전개되고 있으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3-4년에 불과하여 보고된 연구들이 적은 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변용 유형의 시간대별 변화와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추적연구는 더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남한사회 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시 되고 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5년간의 추적 연구이다. 추적조사에 앞서 1차년도 조사는 지난 2003년 통일부 지원 하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홍순혜·정의중·박윤숙·원미순, 2003)²⁾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2차 조사는 2009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 대상 90명 중 주소 및 연락처 불분명자 31명, 국외 체류자 9명, 응답거부자 3명 등을 제외한 총 47명이었다. 추적 과정에서 주소 및 연락처의 불분명 사유로 제외된 31명의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 단독 또는 가족 외의 제3자와 입국한 경우로 미성년보호시설(예: 쉼터)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2003년 조사 당시 주소지가 보호시설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의 시설퇴소 후 소재지를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악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의 불분명과 연락두절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정보를 얻는데 한계를 가졌다. 47명에 대한 조사 완료 후 1명의 응답자료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 사례를 제외시킨 후 46명의 자료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 1차(2003년) 응답자의 주소지 파악, 2단계 - 관계 기관(소재지 유관기관: 사회복지관, 학교 등)을 통한 주소지 미확인 응답자의 연락처 파악, 3단계 -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2차 조사대상자에 대한 협조 요청, 4단계 - 직접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단, 일부 조사 대상자가 직접방문을 꺼려하여 이메일 조사 병행), 5단계 - 누락 또는

2) 1차 조사에서는 2003년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24세 해당하는 남한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청소년 총 521명 중 지역적으로 이들이 가장 밀집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9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증복된 설문내용에 대한 최종 전화 확인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원으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실무자와 현재 서울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 3명을 추천받아 활용하였다. 이들을 선정할 이유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원만하고 무엇보다 남북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선별된 조사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걸쳐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 설문지를 배포·수거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문항으로 북한이탈청소년 자신이 자가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2) 측정

(1) 문화변용

① 남한문화 수용정도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남한문화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다음의 9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나는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고 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한다', '나는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남한 사회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 주겠다', '나는 남한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롭게 사귀는 남한친구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고 있다', '나는 남한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다', '나는 남한의 방송(TV, 라디오)이나 영화를 즐긴다', '나는 남한의 가요를 좋아하며 즐겨 듣는다', '나는 남한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총 9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2)',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0)', '그렇다(1)', '매우 그렇다(2)'로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0점을 기준으로 +점수이면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수이면 남한문화 수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한문화 수용정도에 대한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1차(2003년)조사 대상자들³⁾에게서 .790이었고 이번 2차(2009년)조사에서는 .818이었다.

② 북한문화 유지정도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문화 유지정도도 2003년과 동일하게 다음의 6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북한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자주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나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북한 출신 사람들과 계속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겠다', '나는 북한 출신 사람들과 만나면 반드시 북한식 말투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총 6문항으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북한문화 유지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3) 1차 조사의 대상자는 90명이었으나 1,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는 46명이므로, 여기서 1차 조사 대상자에 의해 얻어진 계수라 함은 1,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들이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점수들을 가지고 계산된 Cronbach's alpha 값을 의미한다.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같이 5점 척도로 측정되어, 0점을 기준으로 +점수이면 북한 문화에 대한 유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점수이면 북한문화 유지성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문화 유지정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1차 조사(2003년) 대상자에게서 .784였고, 2차 조사(2009년)에서는 .835였다.

③ 문화변용 유형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은 Berry(1987)가 제시한 이주민의 문화변용 4가지 유형을 적용하였다. 이들 4가지 유형은 주변형, 분리형, 동화형, 통합형이다. 주변형은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모두 0점 미만인 경우이며, 분리형은 남한문화 수용정도는 0점 미만이지만 북한문화 유지 정도는 0점 이상인 경우이다. 동화형은 남한문화 수용정도는 0점 이상이지만 북한문화 유지정도는 0점 미만인 경우, 통합형은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모두 0점 이상인 경우로 조 작적 정의되었다.

(2) 남한사회적응

① 심리사회적 적응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고자 Achenbach(1991)가 개발한 미국판 CBCL을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K-CBCL⁴⁾의 하위척도 중 위축(9문항), 불안·우울(13문항), 공격성(12문항) 3가지의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위축문항으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불안·우울 문항으로는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 한다',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격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말다툼을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자주 싸운다' 등이 있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본 연구(2차조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위축 .647, 불안·우울 .846, 공격성 .895였다.

② 일상생활 만족도

남한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옥경(1994)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양옥경(1994)의 원척도에서는 의식주, 친구관계,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일, 경제, 대인관계,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 등 10개의 하위영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친구관계, 가족 및 친척관계, 여가활동, 신체건강, 일, 경제, 대인관계, 자율성과 자아감의 문항을 선별하여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선별된 문항들은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당신의 사생

4)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증후군에 대한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117개 문항으로 10개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와 특수척도인 성문제 척도와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 척도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과정상의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하위척도만을 조사하였다.

활보장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친척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요즘 신체건강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현재 당신(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현재 당신의 한 달 수입(월급, 용돈 등)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직장(학교)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요즘 당신이 하시는 여가활동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다. 일상생활 만족도 척도의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조금 그렇다', '3=때때로 그렇다', '4=상당히 그렇다', '5=항상 그렇다' 이며 본 연구(2차 조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92였다.

(3) 통제변수: 남한사회 거주기간

기존 연구들이 남한사회 거주기간과 남한사회적응과의 상관성을 보고하고(금명자 외, 2003; 2004; 전우택, 2006; 박윤숙, 2007)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 거주기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남한 입국 이후 조사 당시까지의 거주기간을 그대로 질문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dows 15.0 version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로 살펴보았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ANCOVA 분석시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거주기간을 통제하고 문화변용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적응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남한거주기간에 가중치를 두고 WLS(Weighted Least-Squares) 분석을 실시하여 문화변용 유형간 남한사회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46명이었으며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63%로 여성보다 많았다. 지역적 분포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대상이 80.4%, 경기도 17.4%, 그외 기타 지역이 2.2%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26.1%, 19-21세 이하 28.3%, 22-24세 이하 23.9%였고 2003년 당시 조사 시점에서 19세 이상이었던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만 5년이 지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24세 초과자가 되어 전체의 21.7%를 차지하였다. 종교로는 기독교가 6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교가 28.3%를 차지하였다. 남한입국 결정에 대해 본인의 선택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5.2%였고, 남한입국을 목적으로 탈북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아니오'가 69.6%로 나타났다. 남한입국 당시 가족이 동행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4.4%를 차지한 점을 볼 때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서 또는 어린 나이에 배고픔으로 탈출이 시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들의 남한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단 1명이었던 반면 2001년에는 31.7%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들의 주보호자로는 부모가 7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10.9%로 나타났다.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90.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족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으며, '하'가 52.2%, '중'이 47.8%였다. 현재 소속 상태를 살펴본 결과, 1차 조사 당시 초·중학생들이 성장하여 현재 대학교 재학중인 자가 18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재학생 10명(21.7%)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에서의 이들이 받은 교육연수가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모두를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였는데, 5년 초과~7년 이하가 16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응답자의 북한탈출 당시 평균나이는 11세,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평균 32개월이었으며, 현재 교류하는 친척 수는 평균 4.67명, 남한에 거주한 총 개월 수는 99.5개월이었다.

<표 2>에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남한입국에 대한 본인선택 여부, 남한입국시기, 남한입국 당시 동행인, 북한 최종탈출 나이, 제3국 체류개월 등은 탈북이나 남한 입국 당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 2차 조사에서의 결과가 동일하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특성들은 1, 2차 조사의 결과가 달랐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종교와 관련하여 '가톨릭' 응답이 9.1%(1차)에서 2.2%(2차)로, 현재 주보호자 중 '거주시설 보호자'가 14.3%(1차)에서 6.5%(2차)로 감소하였다. 또 1차 조사 때에는 중·고등학생이 많고 대학생은 매우 적었던 반면, 5년 이상이 지난 2차 조사에서는 '대학생' 집단이 8.9%(1차)에서 39.1%(2차)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 다른 유의미한 변화로 가족동거 여부에 대한 '예' 응답 비율이 76.1%(1차)에서 90.9%(2차)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부모나 형제 등이 남한사회로 추가 이주하여 북한 이탈청소년들과 합류함으로써 가족동거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1차 조사에서 '하'로 인식한 집단이 34.1%인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52.2%로 늘어났다.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상위학교로 진학하면서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실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인식도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5)

변수	범주	빈도	%	변수	범주	빈도	%
성별	남자	29	63.0	거주지역	서울	37	80.4
	여자	17	37.0		경기도	8	17.4
	소계	46	100.0		기타	1	2.2
나이	18세 이하	12	26.1	종교	소계	46	100.0
	19세-21세 이하	13	28.3		기독교	31	67.4
	22세-24세 이하	11	23.9		가톨릭	1	2.2
	24세 초과	10	21.7		불교	1	2.2
	소계	46	100.0		무교	13	28.3
남한입국 본인선택	예	16	34.8	남한목표 탈북시도	예	14	30.4
	아니오	30	65.2		아니오	32	69.6
	소계	46	100.0		소계	46	100.0
남한입국 시기	1995년	1	2.4	남한 입국 당시 동행인	단독	4	8.9
	2000년	11	26.8		가족	29	64.4
	2001년	13	31.7		친척	3	6.7
	2002년	10	24.4		친구	1	2.2
	2003년	6	14.6		기타	8	17.8
	소계	41	100.0		소계	45	100.0
현재 주보호자	부모	34	73.9	가족동거여부	예	40	90.9
	조부모	2	4.3		아니오	4	9.1
	친척	2	4.3		소계	44	100.0
	거주시설 보호자	3	6.5	가족생활수준	상	0	0.0
	본인	5	10.9		중	22	47.8
	소계	46	100.0		하	24	52.2
현재 소속	초등학교 재학	0	0.0	남한정규/ 비정규 교육년수	3년 이하	4	10.0
	중학교 재학	7	15.2		3년 초과~ 5년 이하	5	12.5
	고등학교 재학	10	21.7		5년 초과~ 7년 이하	16	40.0
	대학교 재학	18	39.1		7년 초과	15	37.5
	검정고시학원 다님	2	4.3		소계	40	100.0
	직업훈련	1	2.2				
	아무것도 안함	0	0.0				
	직장다님	7	15.2				
	기타	1	2.2				
소계	46	100.0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북한최종 탈출나이	44	4	19	11.41	4.31		
제3국 체류개월	39	0	84	32.18	20.24		
현 교류친척인원	18	1	15	4.67	3.51		
남한거주 개월 수	45	78	178	99.49	17.10		

5) 〈표 2〉는 2차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임. 1차조사 때의 특성은 본문에서 2차조사 결과와 비교·기술함.

2) 2003-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변화 추이

(1) 2003-2009 문화변용의 유형 비교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은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북한문화 유지정도를 0점을 기준으로 주변형, 분리형, 동화형,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조사에서는 동화형(18.2%)이 가장 적었고 주변형, 분리형, 통합형이 각각 27.3%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금번 2차 조사에서는 동화형이 35.6%로 2003년도에 비해 17.4%가 증가되었다. 반면 1차 조사(2003년)에서 27.3%였던 주변형은 2차 조사(2009년)에서는 17.8%로 감소되었다. 이는 남한과 북한 문화 모두와 단절되었던 주변화형이 남한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한동화 현상을 나타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표 3> 2003-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비교
(%)

단위: 명

변수	2003-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의 유형비교				소계
	주변형 (북부정, 남부정)	분리형 (북동화, 남부정)	동화형 (북부정, 남동화)	통합형 (북동화, 남동화)	
1차 조사 (2003)	12(27.3)	12(27.3)	8(18.2)	12(27.3)	44(100.0)
2차 조사 (2009)	8(17.8)	11(24.4)	16(35.6)	10(22.2)	45(100.0)

(2) 2003-2009 개인별 문화변용 유형의 변화

2003년도 1차 조사 이후 5년 뒤에 실시된 이번 2차 조사(2009) 자료가 확보되면서 북한이탈청소년 각 개인의 문화변용 유형 변동을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주변형 또는 분리형’에서 ‘동화형이나 통합형’으로 전환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초기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주변형이나 분리형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한문화에 순응(또는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1차 조사 시점인 2003년도 당시 ‘동화형 또는 통합형’이었던 응답자가 5년이 지난 2009년 2차 조사에서 ‘주변형이나 분리형’으로 전환된 비율도 2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기 남한 정착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 속에 남한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보였지만 사회적 지지 기반의 취약 속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면하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회의 또는 반감을 갖게 된 경우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1, 2차 조사 모두에서 ‘주변형이나 분리형’, ‘동화형이나 통합형’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각각 14.0%였다.

〈표 4〉 2003-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개인별 문화변용 유형의 변화

변수	2003-2009 문화변용유형 변화 경향성	
	빈도	%
주변형 or 분리형 그대로 유지형	6	14.0
동화형 or 통합형 그대로 유지형	6	14.0
주변형 or 분리형-> 동화형 or 통합형	16	37.2
동화형 or 통합형-> 주변형 or 분리형	9	20.9
주변형->분리형 or 분리형-> 주변형	2	4.7
동화형->통합형 or 통합형->동화형	4	9.3
소계	43	100.0

3)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과 남한사회적응 간의 관계

(1) 남한문화 수용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문화 수용정도를 0점을 기준으로 높다·낮다로 이분하여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일상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남한문화 수용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위축과 우울·불안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p<.1$ 수준에서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한문화 수용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일상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120, p<.05$).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남한사회에 대한 문화수용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이 낮고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남한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남한문화 수용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2차 조사)

변수	남한문화 수용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위축	낮다	18	6.44	2.94	2.956**
	높다	26	3.46	3.51	
우울/불안	낮다	18	6.94	5.09	2.743**
	높다	26	3.65	2.84	
공격성	낮다	18	4.17	4.71	1.604 [†]
	높다	26	2.23	3.31	
일상생활만족도	낮다	18	47.72	6.99	-2.120*
	높다	26	54.31	11.80	

[†] $p<.1$, * $p<.05$, ** $p<.01$

(2) 북한문화 유지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북한문화 유지정도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북한문화 유지정도와 위축은 탐색적 수준($p < .1$)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우울·불안과 일상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공격성은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 = -1.979, p < .05$). 그러므로 북한문화 유지성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다소 위축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북한문화 유지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2차 조사)

적응 변수	북한문화 유지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위축	낮다	25	3.72	3.22	-1.746 [†]
	높다	21	5.52	3.79	
우울/불안	낮다	25	4.28	2.91	-1.133
	높다	21	5.67	5.24	
공격성	낮다	25	1.96	2.52	-1.979*
	높다	21	4.19	4.93	
일상생활만족도	낮다	25	54.04	11.36	1.576
	높다	21	49.10	9.61	

† $p < .1$, * $P < .05$

(3)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적응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북한문화 유지정도에 따라 문화변용 유형을 주변형, 분리형, 동화형, 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4가지 유형에 따라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및 일상생활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제된 ANCOVA(Analysis of Covariance)와 남한거주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한 WLS(Weighted Least-Squares) 방식을 통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남한거주기간을 통제된 ANCOVA 검증에서는 위축($F = 5.517, p < .01$)이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우울·불안과 일상생활만족도는 탐색적 수준($p < .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점수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한사회적응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서 높거나 낮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남한거주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화형에서 위축점수가 가장 낮고 다음은 통합형이었으며 주변형과 분리형에서 위축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상생활만족도도 분리형에 비해 동화형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적응(2차 조사)

변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ANCOVA (남한거주 기간 통제)	WLS (남한거주 기간 가중치)	
					F	F	사후분석 (Scheffé)
위축	주변형	8	6.50	2.83	5.517**	8.285***	주변형 ≠ 동화형 분리형 ≠ 동화형 동화형 ≠ 통합형
	분리형	11	6.09	3.18			
	동화형	16	2.56	2.53			
	통합형	10	4.90	4.46			
우울/불안	주변형	8	5.63	3.99	2.535†	2.050	
	분리형	11	7.36	5.90			
	동화형	16	3.56	2.13			
	통합형	10	3.80	3.85			
공격성	주변형	8	3.00	4.11	1.696	1.356	
	분리형	11	4.73	5.04			
	동화형	16	1.38	1.15			
	통합형	10	3.60	4.99			
일상생활만족도	주변형	8	51.25	7.15	2.253†	3.686*	분리형 ≠ 동화형
	분리형	11	47.18	9.30			
	동화형	16	56.25	12.72			
	통합형	10	51.20	9.98			

† p<.1, *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5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문화변용 유형 변화와 남한사회적응을 살펴보았다. 2003년 조사 결과와 2009년 금번 조사를 통해 문화변용 유형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의 심리사회적 문제들과 남한에서의 일상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에 참여했던 90명 중 추적이 가능했던 46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많았고, 응답자의 현재 평균 연령은 21세였으며 남한거주기간은 약 8년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입국 당시 가족이나 친척과의 동반입국 형태가 많았고, 현재 대부분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중'과 '하'가 거의 절반씩 차지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에서의 교육지속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1차 조사 시점 당시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령기 또는 초기 청소년기였고 2차 조사에서 정규교육 과정 편입과 대안학교 및 직업교육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의 남한사회 평균 교육 기간은 82개월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의 문화변용 유형을 주변형, 분리형, 동화형,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1차 조사

(2003년)와 2차 조사(2009)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차 조사에서 북한문화와 남한문화 모두에서 분리되었던 주변형이 전체응답자의 약 27%를 차지하였는데 5년이 지난 2차 조사(2009년)에서는 급감하였고, 대신 동화형이 2003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본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시점에서부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개인의 문화변용 유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리형과 주변형 간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동화형과 통합형은 이들 상호 간에 다소 이동이 있었던 반면, 주변형이나 분리형에서 동화형이나 통합형으로 전환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37%를 차지하였다. 이는 남한사회적응 상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나 남한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적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동화형이나 통합형으로 분류된 응답자가 2차 조사에서 주변형이나 분리형으로 바뀐 비율 역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전우택(2006)의 연구결과 일부와도 유사하다. 전우택의 연구 중 2차년도 조사(2004년)에 대한 분석에서 보면, 젊은 연령대일수록 남한사람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적고 남한사회에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많아졌으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현상이 확고하게 남아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 내에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이 커지는 일부가 있는 반면,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일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해석에 앞서 분명하게 해 둘 점은 1차 조사 참여자 90명 중 2차 조사에서 추적 가능했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이다. 추적이 가능하지 않았던 1차 조사 참여자들은 입국 당시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고 이후 거처의 변동이 많았던 청소년들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비교적 남한사회적응이 용이했던 청소년들이 2차 조사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 중 부모보호 청소년들에게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도출된 결론은 남한거주기간의 증가에 따라 남한문화수용이 증가하는 일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과정은 개개인에 따라 상당히 개별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변용은 Gordon(1964)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화에 대한 더 높은 단계로의 동화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며 Atkinson 외(1998)가 제시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높은 평가-비하-선택적 높은 평가'라는 U자형 적응형태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새로운 문화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청소년은 낮은 동화로부터 높은 형태의 동화로 계속 옮겨가며, 어떤 청소년은 U자형 적응형태를 보이고, 또 다른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주변형이나 분리형을 시간경과와 무관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문화변용의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과정이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동질집단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처한 다양한 내적, 환경적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르게 문화변용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변화변용과 남한사회적응과의 관계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문화수용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이 낮고,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남한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문화 유지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높은 집단은 위

측과 공격성이 높았다. 이런 결과로 보아 전반적으로 남한문화 수용이 높고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 및 일상생활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혜정 외(2006)의 연구에서도 북한문화적응과 북한이탈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남한문화 수용정도와 북한문화 유지정도에 따라 문화변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후 남한거주 기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위축, 우울·불안, 일상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가분석은 동화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남한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북한문화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남한문화는 수용하지 못하는 분리형이 가장 적응에 어려움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차 조사 자료(90사례 전체)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유형과 남한사회적응을 연구한 홍순혜·이숙영(2008)의 연구도 동화형이 남한사회적응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금번 2차 추적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과정에 대한 개인별 차이를 인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변용 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문화변용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문화변용이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다면 서로 다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한문화 수용정도가 높은 동화형의 남한사회적응이 높고, 남한문화 수용정도가 낮고 북한문화 유지정도가 높은 분리형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문화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초기 정착 이후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민의 협조 속에 지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또래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학교-기관을 연결하여 남한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및 멘토 연결 등도 효과적일 수 있다.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하나원에서 집중적인 교육과정 이외에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 계획 중인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개별 욕구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5. “북한이탈학생 교육 지원계획 보도자료”.
- 권효숙. 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적응교육: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 료』 16(2): 295-308.
- 김명자·김동민·권혜수·이소영·이희우. 20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 김윤나.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3): 139-168.
- 김종국. 2008.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03-119.
- 박윤숙.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124-155.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2006.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보람. 2007.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사회적 지지와 음주기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정우. 2006. “탈북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과교육』 45(1): 195-219.
- 장창호. 2001.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연구총서 6. 서울: 오름.
- 전우택·유시은·조영아·홍창형·엄진섭·서승원. 2006.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3): 252-268.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변용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81-111.
-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467-484.
- 통일부. 2009. 『2009 통일백서』.
- 허춘영·김광일·이장한. 1999.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8.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홍순혜·이숙영. 2008. “청소년 새터민의 문화변용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회』 15(6): 121-144.
-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 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연구』 서울 : 통일부.
- 홍창형·유정자·조영아·엄진섭·구현지·서승원·안은미·민성길·전우택. 2006.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1): 49-56.
- Atkinson, D., R. G. Morton, and D. W. Sue.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Berry, J. W. 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e Behavior.” in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edited by C. L. Williams and J. Westermeyer. Washin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_____.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pp. 201-235. in *Co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edited by J. Berma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_____. 1990a. "The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s." pp. 232-253. in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R. W. Brislin. Newbury Park, CA: Sage.
- _____.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_____. 2003. "An Ecocultur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pp.3-22. in *Culture and Competence*, edited by R. J. Sternberg., and E. Grigorenko. Washington, DC: APA Books.
- _____.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697-712.
- Berry, J. W., J. S. Phinney., D. L. Sam., and P.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Berry, J. W., U. Kim, T. Minde, and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Migration and Health: An International Review* 21(3): 491-511.
- Berry, J. W. and W. Colleen, 2006. "Commentary on "Redefining Interactions Across Cultures and Organizations".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1(1): 64-77.
- Ford, R. E. 2006.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of Latino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paul.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ves, T.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 337-350.
- Mana, A., E. Orr, and Y. Mana. 2009. "An Integrated Acculturation Model of Immigrants' Social Ident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4): 450-473.
- Redfied, R., R. Linton, and M.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Smokowski, P., R. L. Buchanan, and M. L. Bacallao. 2009.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in Latino Adolescents: How Cultural Risk Factors and Assets Influence Multiple Domains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3-4): 371-393.
- Stevens, G W. J. M., W. A. M. Vollebergh, T. V. M. Pels, and A. A. M. Crijnen. 2007. "Problem Behavior and Acculturation in Morocc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Netherlands: Effects of Gender and Parent-Child Conflic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 310-317.
- Ying, Y. and P. A. Lee. 1999. "Th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in Asian American Adolescents: Status and outco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9: 194-207.
- Ying, Y., M. K. Han., and S. L. Wong. 2008. "Cultural Orientation in Asian American Adolescents: Variation by Age and Ethnic Density." *Youth & Society* 39(4): 507-523.

Follow-up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Adataption to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Hong, Soon-Hae

(Seoul Women's University)

Lee, Sook-Young

(Seoul Women's University)

Kim, Sun-Hwa

(Seoul Women's University)

It is a follow-up study on acculturation types and adaptation level to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ith the same purpose five years ago(2003). The study of 2003(1st year study) was done with 90 adolescents, out of whom 46 participated in this study(2nd year study). The data from 46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both 1st and 2nd stud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n individual acculturation type showed that 40% of the respondents who belonged to 'marginal' or 'separated' types in the 1st study were changed to 'assimilated' or 'integrated' types in the 2nd. Twenty percent changed from 'assimilated' or 'integrated' types in the 1st study to 'marginal' or 'separated' in the 2nd. Furthermore, the higher is the acceptance level of South Korean culture, the lower are their psycho-social problems and the higher is the satisfaction level of daily lives in South Korea. While the higher is the preservation level of North Korean culture, the higher is aggres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developed discussion on diverse alternative plans for helping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in successfully adjusting to the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acculturation, South Korean Adaptation, psycho-social problems, satisfaction level of daily lives.

[논문접수일: 09. 10. 08, 심사일(재심사): 09. 10. 27(12.17), 게재확정일: 09. 12. 29]